

# A/S NEWS

입시 초보 독자를 위한



본지 881호 '진로선택 과목은 3단계 성취도 평가만' 기사 중

임 수석입학사정관은 "진로선택 과목의 3단계 성취도 평가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진로선택 과목이 일반고에 비해 많이 개설돼 있고, 실제 A 성취도를 받은 학생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일반고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진로선택 과목 개설에 대한 불리함을 보완하는 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 진로선택 과목, 1~9등급에서 A/B/C 성취도 평가로 전환

공통 과목으로 지정된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나 일반선택 과목으로 지정된 〈문학〉 〈화법과 작문〉 〈수학 I〉 〈수학 II〉 〈학률과 통계〉 〈사회·문화〉 〈생명과학 I〉 등은 일반고나 특목·자사고 구분 없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진로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고등학교의 특성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이 다릅니다. 영재학교와 과고는 수학과 과학에, 외고는 영어와 제2외국어에 특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2018학년 외대부고 자연과학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의 진로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를 살펴봅시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진로선택 과목입니다. 지금 고1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뉜 성적표를 받게 되지요. 산술적으로 한 반 학생이 30명이라면 1등이 1등급, 2등과 3등이 2등급, 4·5·6등이 3등급을 받게 되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일수록 좋은 등급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3부터는

A/B/C로만 성적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3단계 성취도 평가입니다. 원점수 80~100%면 A·60~80%는 B·60% 미만은 C가 되니,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받으면 모두 A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절반 이상이 나오더라도, 모두 A가 되니 좋은 성적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

정리 손희승 리포터 sontii1970@naeil.com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운영 단위		2학년		3학년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수학	심화국어	5				5	
		기하	4			4		
	영어	고급수학 I		6			6	
		고급수학 II		6			6	
탐구	과학	심화영어 I		3			3	
		심화영어 II		3			3	
		물리학 II	6		3	3		
		화학 II	6		3	3		
생활 교양	기술 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생명과학 II	6		3	3		
		고급 물/화/생(택 2)		6			3	3
	기술 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전공기초 독일어/스페인어 I / 중국어회화 I / 일본어회화 I (택 1)		3 (1학년 1학기)				
		독일어 I / 전공기초 스페인어/ 중국어회화 II / 일본어회화 II (택 1)		3 (학년 2학기)				

『미즈내일』의 입시 분석 기사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코너를 주목해주세요. 지면의 한계로 좀 더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난해한 정보를 골라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봅니다. 기사를 읽다가 궁금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메일(asjung@naeil.com)로 요청해주세요. 친절한 A/S NEWS로 답해드리겠습니다. ☞ 편집자